



제목	Byzantines, Latins, and Turk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World after 1150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3. 2. 7.
저자	Jonathan Harris, Catherine Holmes, Eugenia Russell 엮음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400
ISBN 또는 ISSN	978-0199641888

내용 요약

『1150년 이후 동부 지중해 세계에서 비잔틴인, 라틴인, 튀르크인』은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중세 후기부터 16세기 오스만 제국으로 흡수될 때까지의 종교적 정체성, 문화 교류, 상업적 연결망,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구조에 관한 13편의 논문을 엮은 책이다. 이 시기에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는 수많은 튀르크인 이주민들이 차지하였고, 에게 해 지역은 라틴국가들이, 비잔틴 제국은 작은 국가로 변하였다.

편자인 흠즈가 밝히는 이 책의 목적은 동부 지중해 지역이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가, 중세 후기 동부 지중해 지역의 역사가 연구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중해, 더 줄여서 동부 지중해가 하나의 긴밀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공헌은 비잔틴, 오스만, 맘루크, 베네치아, 제로나 등 각각의 역사들을 중세 후기의 동부 지중해라는 영역으로 묶은 것에 있다. 두 번째 공헌은 다양한 공동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행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제국의 수도로서, 혹은 도시국가로서의 콘스탄티노플, 중세 후기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비잔틴인과 라틴인이 상호의존적인 상황, 튀르크, 맘루크, 라틴 상인들: 동부 지중해에서의 상업, 갈등, 협동의 상황, 이슬람의 예루살렘 정복을 대재앙으로 보는 전통적, 그리스도교적 시각에 대한 거부, 중세 후기 이슬람의 정신과 문화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역할 등의 글들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 문화적 현상을 동부 지중해라는 하나의 공동된 문화 범주로 묶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